

# 불자라면 매순간이 결제요 해제다

## 보운사 일요법회- 주제: 진정한 해제는?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은 2월 22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불자들에게 일요 초청법회서 2월 20일 '진정한 해제'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불자들이 맞이할 진정한 해제는 건곤(乾坤:하늘과 땅)을 확 뒤집으며 일체 중생을 출 삼계(出三界)하여 여해도전(如解倒懸: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는 것)하여야 합니다."라며 "우리는 매 순간이 결제요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인연사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뿌리인 불성으로 향하고 불성(佛性)에 안주해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결제(結制)는 무엇이 결제이고 해제(解制)라 하면 어떤 것을 해제라 할까요?

본래 결박하지 않았거늘 어찌 결제라 하며, 또한 본래 결박이 없으니 풀 것도 없거늘 무엇을 해제라 하겠습니까? 결망 내려놓고 좌대에 편히 앉는 것을 결제라 하고 무거운 결망지고 유람 길을 걷는 것을 해제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척사물직하수(千尺絲絙直下垂)**  
천척이나 깊어 아무리 찾아 간곳 없고,  
**일파동만파수(一波動萬波隨)**  
한 생각 지우려니 만 생각 꼬리를 치네,  
**야정수한어불식(夜靜水寒魚不食)**  
알고보니 본래 한물건도 건질 것 없거늘  
**만선공제월명귀(滿船空載月明歸)**  
밝은 달이나 가득 실어 고향 찾아 갈까나.

결제 해제라 하면 우선은 선방에 입방해 안거 하는 것을 떠 올립니다. 안거는 동안거 하안거로 나누는데 동안거가 안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거동안은 수좌 스님들이 은산철벽(銀山鐵壁) 같은 굳은 의지로 화두를 안고 씨름을 합니다. 추위와 더위 아랑곳 하지 않고, 일대사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화두 타파에 전념합니다.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으며 이중에는 조사선(祖師禪) 여래선(如來禪), 간화선(看話禪)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어찌 1700백 공안만 있겠습니까?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모두 화두 인 것일요. 화두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불입문자(不立文字)이며 심행처멸(心行處滅)입니다. 왜냐하면 화두는 근거나 원천이 없으며 그 자체가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체용(體用)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시불심(禪是佛心: 부처님마음)이요, 교시불어(敎是佛語: 부처님 말씀)며, 율시불행(律是佛行: 부처님 행)이라고 하여 제반 수행자가 모두 근습(勤習)하는데 유독 결제 해제가 선승

을 위주로 한 것도 그 자체가 성불의 체(體)가 되고 용(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화두 동기를 들면, 선객이 제일 많이 무거운게 결망 가득히 담고 다니는 화두는 무(無)자 화두입니다.

어느 날자(선객)가 있어 조주스님과 대화도중 개가 한 마리 지나가니 날자가 말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스님께서는 "무(無)"라고 답했습니다. 누가 조사 스님께 여쭙기를 여하시불(如何是佛)입니까? 하니 사알 간시궤(乾屎 마른똥 묻은 나무)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앞에 잣나무)라는 말 등등 화두에 얽힌 얘기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러 글 자체는 격외구(格外句)라 하며 이렇게 알려 전하는 것을 격외별전(格外別傳)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일반불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두는 '이 뭐꼬?'

**"본래 결박하지 않았거늘 어찌 결제라 하며, 본래 결박이 없으니 풀 것도 없거늘 무엇을 해제라 할까요?"**

(이것이 무엇일고) 또는 판치생모(板齒生毛: 판치기 이에 털이 난 것(공망이) 등입니다. 날자는 이 말을 받아서 '왜'라는 의문사를 탐구 하는 것이 결제 간 공부하는 것이며 해제라는 것은 공부 한 것이 올바르게 잘못됐는지 선지식을 찾아 보림(普任)하는 것입니다.

선을 하는 사람은 천지가 개공(空空) 하도록 화두를 잡든 망상을 쫓든 아니면 번뇌 속이라도 폭 빠져 보아야 합니다. 독경 하는 사람 또한 삼라만상이 모두 경으로 되 석어서 현연일체(渾然一體)되어 조박(糟粕)이 아닌 감로수를 맛 봐야 합니다. 염불을 하는 사람도 대적삼매(大寂三昧)에 들어 시 공간(時 空間) 초월하고, 계를 섭률(攝律)하는 율원에서



**법진 스님**은... 1967년 해인사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68년 조계종 해인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77년 보운사 회주, 1978년 한국불교대학교 중남부 스님계 입실, 1996년 수다원 원장, 2004년 태고종 중앙총회의원, 2009년 태고종 서 울남부중앙위원장, 2012년부터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로 있다.

는 비불지언(非佛之言: 부처님 말씀이 아님)이던 말하지 않고 비불지행(非佛之行: 부처님의 행이 아님)행하지 않는 철저한 계행으로 오호통재(嗚呼痛哉)란 말처럼 슬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시간은 먼역백신이 없어 전등석화(電燈石火)처럼 빠르니 통전심부(痛纏心扉: 가슴을 여메는듯)입니다.

우리는 화두를 받고 여잡처견(如羴處蘭: 고치속의누에) 수행하는 이들이 많 습니다.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은 가져없이 경력을 하셨습니다. 남악 회양선사의 마전성경(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의 일화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당나라 현종의 개원중에 도일이라는 스님이 남악의 전법원서 매일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양선사는 그가 훌륭한 법기임을 알고 가서 물었지요. 대덕은 왜 좌선을 합니까? 도일 스님이 답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남악 회양선사는 곧 벽돌을 가지고 암자 앞의 바위에 앉아서 갈기 시작했습니다. 도일 스님은 이것을 보고 물었지요.

"선사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남악 회양선사는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일이 반문했습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선사가 꿈 반문했지요. "그대가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도일 스님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선사가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갈때 수레가 나아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겠습니까? 소를 때려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일 스님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남악 회양선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는 좌선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좌불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만약 좌선수행을 한다면 선은 좌와에 있지 않는 것이고, 또 좌불을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무주부에서 취하고 버리려는 차별심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대가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만약 좌선하는 상즉 모양에 집착한다면 불법의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도일 스님은 남악 회양선사의 교시를 듣고 마치 달콤한 우유를 마신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우리 불자들은 좌선수행을 할 때 좌선이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수행이 성품을 확연히 보고 닦는 것인지 자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 화두로 경계를 대치하며 점진적으로 닦아가야 합니다.

결제때 또는 날마다의 수행할 때 드는 이 화두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이며 공즉시색(空卽是色)입니다. 또한 부증불감(不增不减)이며 불구부정(不垢不淨)인 시공(時空)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이 맞이할 진정한 해제는 건곤(乾坤:하늘과 땅)을 확 뒤집으며 일

### "큰 원력을 갖고 주어진

**인연사에 최선을 다하며 마음은 불성에 안주해 있어야 합니다"**

체 중생을 출 삼계(出三界)하여 여해도전(如解倒懸: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는 것)하여야 진정한 해제인 것입니다. 교외별전의 열반묘심을 맛보는 진정한 해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수행에는 본디 시작도 없거늘 끝이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중간이 있겠습니까?

蠶蟲(누에)는 사생을 산다고 합니다. 고쳐서 알로, 알에서 굶뎠이로 또 나방으로 됩니다. 그럼 어느 것을 일러 해탈이라 하겠습니까? 기한동뇌(飢寒凍) 아니라면, 누에는 사생이 다 만족한 것입니다. 사생육도(四生六道)를 사의순환(似蟻巡環)하는 것이 고통인줄 모르기 때문이며 현존하는 그대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잔등이를 부리로 뚫듯이, 망상을 쫓고 또 쫓기고 하다보면 쥐가 고양이 한테 쫓겨서 도망가다 갈 곳 없는 막다른 곳에 부딪히면 역으로 고양이를 물어뜯는 호시절 호소식이 있을 때 진정한 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스님의 신심명(信心銘)에 이르시기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중취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바세계는 삼독(三毒: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치성하여 언제나 안팎이 불안합니다. 경쟁, 갈등, 두려움, 전쟁 등으로 편안하게 살 날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현상만을 좇아가기 때문입니다. 무한탐욕, 무한경쟁, 무한개발 등등 말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속의 우리를 마음도 바쁘게 다. 지고 처지면 죽는다는 생각에 끝없이 달려야 합니다. 수조실종(隨照失宗)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지는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우리불자들은 귀근득지(歸根得旨), 이 말씀을 잘 새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근본(중도본성)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재앙과 고난은 마음이 삼독으로 찌들어 끝없이 밖으로만 치달을 때 생깁니다. 이제는 세계인들도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뿌리로 마음을 돌려볼 때 그 속에 모든 성(聖)스러운 과 평화, 자비, 무한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깥으로는 필경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노병사(生老病死) 생주이멸(生住離滅)의 무상(無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 순간이 결제요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인연사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뿌리인 불성으로 향하고 불성(佛性)에 안주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큰 원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내 주변부터 신실한 불자로 인도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수행해야 합니다. 간화선, 위빠사나, 수식관, 염불, 간경 등등 어느 수행방편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수행의 과정과 결과는 귀근득지(歸根得旨),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매 순간 이러한 마음에 안주하고 매 순간 이와 같은 불행(佛行)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위대한 문수행자요, 보현행자요, 관음행자요, 지장행자인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중취를 잃는다는 고언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계선센터

### 선수행학교 5기 수강생 모집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고 무너진 균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선으로 평온의 세계에 이르는 수행의 시간

**개강일** 2016년 3월 9일(수요일) 매주 수요일 14시 ~ 16시 (언제든지 접수하세요~)

**강사** 세계선센터 선원장 수진스님 직접 지도

**참가비** 4개월 (10만원)

**장소**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 (동명관 4층)

**문의** ☎ 051)629-3582 ~ 4

※ 강의 일정은 강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계선센터 홈페이지 : <http://seon.tu.ac.kr>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 신앙생활 모집안내

2016(불기 2560)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교과과정 안내** \*아래 교육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정	불교학과		교법사과
	초급과정	중급과정	
기간	1년	1년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초발심자경문, 정토사상, 천태소지관	천태학개론, 금강경 대승불교, 법화경	종관사상, 육묘법문, 기신론, 천태종사
자격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수업요일	월	화	수
수업시간	1교시 : 18:30 ~ 19:50 2교시 : 20:10 ~ 21:30		
서류 및 전형방법	· 입학원서 1부(5000원) · 반영합판 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 지원서 1부 · 반영합판 사진 2매 · 서류전형
입학정원	약 200명		약 100명
수강료	1년 20만원		1년 30만원

**\* 원서접수**

우면동 관문사	02.3460.5300
평택 법장사	031.655.9050
신촌 성룡사	02.336.2052
수원 용광사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02.889.7272
구리 금성사	031.563.9364
구로 명화사	02.854.0196
안양 대안사	031.459.3666
망우동 삼봉사	02.496.3803
안산 월강사	031.419.5048
성남 화회사	031.745.1482
부천 천화사	032.671.5353
일산 보월사	031.905.2912
군포 상락사	031.392.0924

· 접수 : 2월 28일까지  
· 면접 : 2016.3.2(수) 오후 7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전화 :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미술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 관문사에서 하차)